

월간독자 Reader 2014.1

김달진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자료 수집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신문뜨가 리나 오려가지고 나중에 밥 먹고 살겠느냐”

그때는 지금처럼 전시도 드물고 화집 같은 게 없던 시절이어서 여성지에 화보로 나온 모나리자 그림 같은 걸 뜯어서 모으기 시작한 게 발전해서 천직이 됐네요. 웃음

고등학교 졸업 후 <월간 전시계>라는 잡지사에서 일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 언론 통폐합이 되면서 없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는 거 같아요. ‘내가 과연 자료수집으로 살

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유명한 미술평론가였던 이경성 선생, 이구열 선생, 신문사 편집장들, 갤러리현대 박명자 사장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신문 같은 거 오려서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월간지 <뿌리 깊은 나무>의 김형윤 편집장 딱 한 분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취미로 끝나야지, 직업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당시 홍익대학교 박물관장 이경성 선생이 와보라고 해요. 나름 공부한 대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별로 예쁜 색 켄트지에 자료들을 붙여서 큰 보자기에 싸가지고 박물관에 찾아가 큰절을 했어요.

그분에게 그 자료들이 보잘것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정성과 열심히 하는 모습을 기억해 두셨던 것 같아요.

81년도 이전에는 문화예술기관의 기관장을 공무원들이 맡았

원들이 “놀러 나가는 거지 무슨 자료 수집이나. 보내오는 거 정리나 해라” 그럴 만큼 자료수집에 대한 인식이 낮았어요. 지금은 소장품이나 자료들을 디지털

“‘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또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맨날 웃으면서 다녔어요. 3년 동안 밤에도 일하고 주말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그때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맡게 되었어요.

국립극장장은 허규 선생,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경성 관장이 맡았는데 관장님이 저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추천해 일하게 됐죠.

그런데 근무하면서 보니까 자료실도 없고, 팸플릿이 오면 오는 대로 모아놓기만 해요. 제가 자료 수집하러 간다 그러면 직

화해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카이브’라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저도 제가 모은 자료들이 아카이브가 될지 몰랐죠.

자료 수집을 하는 분들은 많지만 제가 차별화될 수 있었던 건 자료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거기서 가치를 창출시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음호에 계속

월간독자 Reader 2014.2

김달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는 동안,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자료라는 게 적극적으로 찾

아다니며 모아야지, 보내오는 것만으로는 수집의 범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해서 몇 번 이야기해 겨우 출장 허락을 받았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출근하면 쇼핑백 들고 도장 찍듯 인사동, 동숭동을 돌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자료들로 85년도 미술전문계간지 <선미술>에 ‘관람객은 속고 있다’는 글을 썼어요. 작가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기하거나 잘못 알려진 경력과 전시, 연보, 연표를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썼는데 그 글이 일간지에도 많이 인용되어 파장이 컸었죠.

15년간 근무한 국립현대미술관에 자료실을 처음 만들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거기서 정년퇴직때까지 일하고 싶었는데 직급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미술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 직장에서는 제일 말단 타자원이나 방호원 직급인 기능직 10급 대우를 받으니까 여러모로 힘들었죠. 갈등하다가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2001년 11월에 자의 반타의 반으로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시작했어요.

프랑스를 자주 드나들던 가나아트센터 회장이 <가이드>라는 미술 정보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건네 준 적이 있는데, 그걸 모델로 <서울아트가이드>를 만들었어요.

벌써 11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습니다.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외에도 동시대에 화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들도 많은데 타계하면 잊혀지잖아요.

밤하늘에 일등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등별, 삼등별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건데 말이죠.

자료가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돈이 안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에서 제일 큰 미술정보지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2008년에는 국민대학교 동문회관 지하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모은 자료로 박물관까지 만들었다고 당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지요.

몇 년 전에는 홍대 쪽으로 옮겨오면서 자료들을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미술자료 보존 아카이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잡지와 웹사이트, SNS를 통해 미술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있어요.

또 우리 현대미술의 역사를 보존하고 관리해 후세에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료와 신간을 모아 매년 전시회 통계를 내고 그걸 연감으로 기록해서 <대한민국미술인명록>도 만들었

이 일에 사명감을 갖게 돼요. 60년간 피카소 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열렸다는데 한 번도 그 통계를 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일일이 다 정리하니까 ‘피카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전시가 29건이에요.

이런 일을 하다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술행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

김달진 미술이 좋아 중학교 때부터 미술자료를 수집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10여 명의 월급을 주는 중소기업 사장에, 한국 최고의 미술자료 수집가가 되었다. 미술자료 보존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시절에 고졸 출신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입사해 15년간 방대한 자료를 체계화해 지금은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으로 불린다.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는 말을 새기며 30년간 수집해온 희귀자료와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5만여 점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열었고, 국내 최대의 미술 전시소식지 <서울아트가이드>를 발행하고 있다. ‘이 사회 한 분야의 개척자’로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릴 만큼 미술계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아내와 두 아이들과도 추억을 쌓으며 살고 싶다.



형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비엔날레가 열 개 이상 되거든요.

이게 미술계를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여기도 가 봐야지 저기도 가 봐야지... 또 지자체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예산 따오는 데만 혈안이 되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은 비엔날레 천국’이라고 조롱하는 이유입니다.